

『皇華集』을 통해 본 企齋 申光漢의 작가 의식

— 明使 張承憲과의 酬唱 樣相을 中心으로 —

손 유 경 *

<目次>

- | | |
|---------------------|------------------|
| I. 서론 | IV. 『황화집』작품에 투영된 |
| II. 신광한의 明使 접대 이력 | 신광한의 작가 의식 |
| III. 明使 張承憲과의 교유 양상 | V. 맺음말 |

<국문 초록>

企齋 申光漢(1484-1555)은 1507년 宦路에 들어서서 1554년 致仕할 때까지 30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文衡을 장악하여 당대 문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인물이다. 본고는 신광한의 삶의 여정을 따라 그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식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신광한이 明使를 접대하면서 수장한 시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은 신광한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敍用되자마자 연이어 明使의 접대를 담당했던 이력은 신광한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그의 시문에 대한 동시대인의 인정을 반증하는 것이자,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에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기재집』에 소재한 시 작품들 중에서 신광한의 외교술과 사장 능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권11과 권12를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작품들인데 접반 업무의 특성 상 明使의 先唱에 唱和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시들로 대부분 次韻詩의 형식을 띠고 있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 curator98@hanmail.net

본고는 明使 장승헌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황화집』 소재 작품들을 텍스트로 하여 明使 장승헌과의 교유 양상을 밝히고, 그 唱和詩에 속에 투영된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고구하였다. 신광한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세 차례의 사행 중에서 1545년(인종 1)에 행해진 사행에 논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황화집』 수록 작품들은 비록 특수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광한의 경우 자신의 작품 안에서 국가의 체모를 지키고자 하는 관료의식과 시인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키려는 시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사환기의 그의 내면세계를 엿보는데 유의미한 연구 자료가 된다. 또한 명나라 장승헌의 작품과 조선의 신광한의 작품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신광한의 작시 배경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양국 문사의 시각을 함께 드러낸 것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신광한, 황화집, 창화시, 明使, 작가의식

I. 서론

企齋 申光漢(1484-1555)은 1507년 宦路에 들어서서 1554년 致仕할 때까지 30년간¹⁾ 관직에 있으면서 文衡을 장악하여 당대 문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인물이다. 신광한에 관한 연구는 蘇在英이 「企齋記異」를 발굴²⁾한 이래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 중 시문학에 관한 연구로 오현숙, 윤채근, 심경호, 강소영의 것³⁾이 있으며, 임채명⁴⁾이 그의

1) 1519년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여주로 추방된 후, 1538년 성균관 대사성직을 제수 받을 때까지 18년간 칩거하였다.

2) 蘇在英, 「申光漢의 企齋記異」, 『崇實語文』 3집, 崇實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6.

3) 吳賢淑, 「企齋 申光漢의 詩研究」, 『漢文學論集』 14집, 근역한문학회, 1996.;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6.; 沈慶昊,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姜縉瑛, 「企

논문 「기재 신광한 한시 연구」를 발표하여, 기재시를 내용·풍격·수사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신광한의 삶의 여정을 따라 그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식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신광한이 明使를 접대하면서 수창한 시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물론 이것은 신광한의 시 작품 세계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가 敍用되자마자 연이어 明使의 접대를 담당했던 이력은 신광한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그의 외교술과 사장 능력은 그가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아울러 문학적으로도 그의 시문에 대한 동시대인의 인정을 입증하는 것⁶⁾이기에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기재집』⁷⁾에 소재한 시 작품들 중에서 신광한의 외교술과 사장 능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권11⁸⁾과 권12⁹⁾를 들 수 있다. 이

齋 申光漢의 漢詩 小攷 -寓居期 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4) 林采明,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5) 1539년(중종 34) 迎慰使, 1545년(인종 1) 遠接使. 1546년(명종 1)에 다시 원접사로 거론되었으나 신광한은 자신의 이름이 『황화집』에 실린 지 1년도 채 안되어 또 원접사를 맡을 경우, 중국에서 반드시 동방에 문사가 적다고 여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을 것을 청하였다. (『明宗實錄』, 「明宗即位年 11月 13日條」 참고)
- 6) 『中宗實錄』, 「中宗 34年 2月 5日條」,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략) 도사 선위사는 마땅히 문장을 잘하는 자로 삼아야 합니다. 대사간 신광한이 끝까지 잘 보좌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三公議啓曰 … 都司宣慰使, 宜以能文者爲之. 大司諫申光漢, 可以終始陪來矣.]”
- 7) 申光漢, 『企齋集』, 『韓國文集叢刊』 22, 한국고전번역원.
- 8) 細主에 “嘉靖己亥春, 天使翰林侍讀華察·工科左給事中薛廷寵, 來詔來頒. 特遣公爲都司迎慰使, 代遠接使蘇世讓作”이라고 되어 있으니, 1539년(중종 34) 迎慰使로 파견되었을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모두 41題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9) 細主에 “嘉靖乙巳夏, 中宗大王賜謚賻祭. 天使行人司行人張承憲之來, 公爲遠接使, 酬唱之仆.”라고 되어 있으니, 1545년(인종 1) 遠接使로 파견되었을 때

작품들은 모두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작품들인데 접반 업무의 특성 상 明使의 先唱에 唱和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시들로 대부분 次韻詩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임채명¹⁰⁾의 연구 성과가 있는 바, 그는 『황화집』 소재 시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주제적인 특징으로 禮義에 기반한 조선의 기풍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과 家系에 근원한 文才의 表出을 담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었다. 임채명의 연구는 寓居期 작품들에 치우쳐 있던 연구 경향을 다각화 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분석이 신광한의 두 차례 접반 업무 중 전자의 사례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과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시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明使의 작품을 배제하고, 신광한의 작품만 분석함으로써 상호 교류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明使 장승헌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황화집』¹¹⁾ 소재 작품들을 텍스트로 하여 明使 장승헌과의 교류 양상을 밝히고, 그 唱和詩에 속에 투영된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고구하고자 한다.

II. 신광한의 明使 접대 이력

明나라 사신의 조선 使行 횡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¹²⁾, 대략

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모두 38題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10) 임채명, 「企齋 申光漢 詩의 一局面 - 『皇華集』 所載 詩를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19집, 근역한문학회, 2001.
- 11) 『皇華集』, 靑雲文化史 影印 (영조 49년).
- 12) 中國의 高艷林은 明나라 277년 중 고려와 朝鮮에 보낸 사신의 수가 105회였다고 주장하였고, 王裕明은 明에서 朝鮮에 파견한 회수는 170여차라고 주장하였다. 朝鮮 正祖·純祖 때의 史學者 韓致瀛(1765-1814)의 『海東譯史』 제38권 「交聘志」에는 100번의 使行이 적혀 있다. (류기수, 「『皇華集』의 刊行과 收錄된 明詞에 관한 考察」, 『中國學研究』 47, 중국학연구회, 2009, p.106.)

적으로 100여 차례 이상으로 생각된다. 이 중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영조 49년에 간행된 『황화집』에 纂集되어 있는 사행은 모두 24차에 해당된다¹³⁾. 조선의 문신과 明의 사신 간에 시문 수창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것을 모아서 만들게 된 『황화집』은 세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신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간행되었는데¹⁴⁾, 점점 국가적으로 『황화집』 간행이 중요시되면서 定例化 되었다.

『황화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24차의 사행 중 기재 신광한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행은 모두 세 번으로 보인다.

<신광한이 참여한 사행>

| 回次 | 卷 | 年度 | 使行名 | 遠接使 | 明正使 | 明副使 | 編者 |
|----|-------|------------------|---------------------------------------|-----|--------------------------|-----|-----|
| 12 | 23-27 | 1539년 (중종 34) | 頒冊立 皇太子 恭上皇 天上帝 恭號二 詔使 | 蘇世讓 | 華察 | 薛廷寵 | 成世昌 |
| 13 | 28 | 1545년 (인종 1) | 賜諡使 | 申光漢 | (郭王 放) ¹⁵⁾ | 張承憲 | 鄭士龍 |
| 14 | 29 | 1546년 (명종 1) | 賜諡使 | 鄭士龍 | (劉遠) | 王鶴 | 申光漢 |

13) 이 중 1차와 24차는 사행 직후 간행되지는 않았고, 후에 영조 연간 역대의 『황화집』을 모아서 50권 25책으로 간행할 때에 정리되어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韓國漢詩學會 제9회 學術大會 發表資料集』, 1999, p.127. 참조.)

14) 『世祖實錄』, 「世祖 14年 6月 6日條」, “관반에게 유시하기를, ‘만약에 예겸·사마순의 황화집은 어찌하여 없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황화집은 모두 그 청함을 따라서 인쇄하였는데, 倪侍講·司馬給事中은 청하지 않은 까닭으로 인쇄하지 않았다고 하라.’ 하였다. [因諡館伴曰, 若問何無倪謙·司馬恂皇華集, 答曰, 皇華集皆仍其請而印之, 倪侍講·司馬給事中無請, 故不印耳.]”

신광한은 1539년(중종 34)에는 황제가 중종에게 내리는 尊號를 받든 사신을 영송하기 위한 迎慰使로, 1545년(인종 1)에는 중종의 승하를 위로하고 인종의 등극을 하례하러 온 사신의 遠接使로, 1546년(명종 1)에는 館伴使로 세 차례 사신의 영접을 담당한다.

人臣無外交의 원칙을 들어 조선 출신 환관으로 사절단을 구성하던 明은 잦은 교류를 통해 조선의 높은 문화 수준을 체감하게 되면서 頒登極詔使와 頒冊立皇太子詔使 등 중요한 외교문서를 가진 사신을 파견할 경우, 文官 중에서 엄선하여 보내기 시작했다.¹⁶⁾ 이렇게 明에서 사절단으로 學行이 있는 관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선 측에서도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실제로 중국의 사신을 맞는 조선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사신과의 수창에서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遠接使 선발에 있어서 중국 측 사신에 필적할 수 있는 文藝를 갖춘 자의 등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545년 신광한이 明使 張承憲의 원접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이미 62세였는데 그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그에게 문예가 있음을 들어 윤허하지 않았다는 점¹⁷⁾만

15) ()로 표기한 것은 賜諡使로 太監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시문을 짓지 않아 『황화집』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16) 汪俊, 『使東日錄』, 「使東日錄序」, “조선은 중국과 가까워 (중략) 조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융숭하게 대우하여 오랑캐로 여기지 않았으니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 모두 翰林近臣으로 충당하였다.”

신태영은 성종23년(1492) 정사로 왔던 애박과 중종1년(1506)년 徐穆이 각기 15수, 7수의 시밖에 남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이들의 文才가 조선에 비해 얼마나 처졌던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賜諡使를 제외한 正使는 모두 한림원 소속의 시독·검토·수찬 등으로 충당되었다는 점과 詩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명에서 조선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申太永, 『『皇華集』研究 - 文學的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34. 참조.)

17)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9月 28日條」, “右參贊申光漢啓曰, ‘小臣, 本以庸劣之人, 今爲大提學. 臣自少有病, 氣質昏暗, 頓乏才藝, 而今則年已衰老, 前忘後

보아도 당시 조정에서 遠接使 선발에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것은 신광한의 文才에 대한 당대의 인정과 신뢰가 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신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파견되는데, 조선의 일로 오는 경우는 환관이 왔으며, 중국의 일로 올 때는 문신이 오게 되어 있었다.¹⁸⁾ 그러다가 조선 측 임금의 喪에 시호를 보내기 위해 파견되는 賜諡使의 경우 文官을 임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는 副使만 문관으로 임명하여 중국의 일과 그 격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賜諡使로 文官을 파견하기 시작한 첫 사례로 조선 땅을 밟은 이가 바로 張承憲이다. 장승헌 이후 연속 네 번¹⁹⁾에 걸쳐 弔祭副使로 文官이 파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명에서 바라 본 조선 측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副使만 文官이 파견된 경우도 역시 그 수창한 시문을 엮어 『皇華集』을 발간하였다.

Ⅲ. 明使 張承憲과의 교류 양상

張承憲은 명나라 松江府 華亭縣 사람으로 字는 覽先, 號는 白灘이다. 吏部給事中을 지냈으며, 1545년(인종 1) 弔祭副使의 신분으로 太監 郭壬放과 함께 朝鮮에 와서 祭文·諡號·賻儀를 전달한 인물이다. 장승헌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1554년 진사가 되었다는 기록이나 신광한을 어른으로 대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신광한과의 나이 차이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 이듬해에 장승헌과 같은 弔祭副使의 신분으로 조선에 온 行人司 行人 王鶴의 나이가 30세였다는

夫, 一國文衡之任, 老病之人, 其何堪處? 請遞.’ 傳曰, ‘在先朝, 嘗聞卿文藝之名. 大臣亦豈偶然計而啓哉? 上下之情, 皆以爲當, 卿其勿辭.’ 再啓, 不允.”

18) 김은정, 앞의 논문, p.123.

19) 仁宗 1년(1545)의 張承憲·明宗 1년(1546)의 王鶴·宣祖 1년(1568)의 歐希稷·光海君 1년(1609)의 熊化

점²⁰⁾, 다음 차 賜諡使 歐希稷도 신진 문관이었다는 점²¹⁾ 등을 통해 賜諡使로 보내는 副使들은 모두 젊은 나이의 신진 문사들이었으며, 장승헌 역시 그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弔祭副使로 파견된 이들은 모두 비록 文官이기는 하나 아직 作詩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學行이 다듬어지지 못한 신진 관료들이었음이 여러 기록에서 산견된다.²²⁾

明使의 사행 기간은 보통 압록강을 건넌 후 평양까지 10여일, 평양에서 京都에 이르는 데까지 10여일이 걸려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사행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보이는 풍광 및 거처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문을 짓는데, 이들이 지나가는 길은 일정했기 때문에 시적 대상도 거의 비슷했다. 그 주요 시제는 아래와 같다.

<여정에 따른 주요 시제>²³⁾

| | 경유지 | 객 관 | 주 요 시 제 |
|---|-----|-----|----------|
| 1 | 義州牧 | 義順館 | 鴨綠江, 所申驛 |
| 2 | 龍川郡 | 良策館 | |
| 3 | 鐵山郡 | 車輦館 | 盤松 |
| 4 | 宣川郡 | 林畔館 | 東林城 |
| 5 | 郭山郡 | 雲興館 | 孝女四月 |

20)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14日條」, “行人司行人王鶴代蕭一鴉, 一鴉病也. 鶴陝西長安人, 甲辰年出身, 年三十.”

21) 『宣祖修正實錄』, 「宣修 1年 2月 1日條」, “歐希稷(新進文官.) 性躁無威儀, 事畢, 卽發倍程而馳, 沿路州郡, 多以供帳不及得罪.”

22) 『宣祖修正實錄』, 「宣修 1年 2月 1日條」, “歐與遠接使唱酬, 而詩不成語.”;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14日條」, “鶴陝西長安人, 甲辰年出身, 年三十, 性度溫雅, 文章勝於張天使承憲.”; 『仁宗實錄』, 「仁宗 1年 5月 2日條」, <史臣評>, “讀不忍觸先王之諱, 在臣子之情, 宜其爾也, 而以君前臣名之言, 必欲與之詰者, 不可謂不知禮也.”; 「仁宗 1年 5月 2日條」, <史臣評>, “以天使行私祭於外國, 王放, 宦者, 其不知禮宜也, 承憲牽於王放而亦行之, 尙可謂知禮乎.”

23) 申太永, 앞의 논문, pp.11-12.

| | 경유지 | 객 관 | 주 요 시 제 |
|----|-------|-------------------|--|
| 6 | 定州牧 | 新安館 | 唐於嶺, 撻川, 迎薰樓, 納清亭 |
| 7 | 嘉山郡 | 嘉平館 | 西門嶺(嘉山嶺) |
| 8 | 博川郡 | | 博川江 |
| 9 | 安州牧 | 安興館 | 清川江(薩水), 百祥樓 |
| 10 | 肅州都護府 | 肅寧館 | |
| 11 | 順安縣 | 安定館 | |
| 12 | 平壤府 | 大同館 | 錦繡山, 德岩, 大同江, 白銀灘, 南浦, 綾羅島, 乙密臺, 浮碧樓, 大同門樓, 練光亭, 快哉亭, 文廟, 檀君祠, 井田, 箕子祠, 東明王寺, 箕子墓, 麒麟窟 |
| 13 | 中和郡 | 生陽館 | 東明王墓 |
| 14 | 黃州牧 | 齊安館 | 客官, 廣遠樓, 棘城鎮 |
| 15 | 黃州 | 齊安館 | |
| 16 | 鳳山 | 洞仙館 劔水館 | 洞仙驛, 劔水驛, 環翠樓 |
| 17 | 瑞興都護府 | 龍泉館 | |
| 18 | 平山都護府 | 安城館 寶山館 金巖館 | 安城驛, 寶山驛, 金巖驛, 蔥秀山, 猪灘 |
| 19 | 牛峰縣 | 興義館 | 吾早川 |
| 20 | 江陰縣 | 金郊館 | |
| 21 | 開城府 | 太平館 | 高麗古宮, 太平館, 松嶽, 碧瀾渡, 陽陵井 |
| 22 | 長湍都護府 | 東坡館 | 東坡館, 臨津渡 |
| 23 | 高陽 | 碧蹄館 | 碧蹄館 |
| 24 | 漢城府 | 慕華館 太平館 | 蠶頭峯, 漢江, 楊花渡, 青鶴面, 慕華館, 東平館, 北平館, 濟川亭, 望遠亭, 太平館 |
| 25 | 京都 | | 文廟, 成均館, 漢江, 濟川亭(漢江樓), 楊花島 |

신광한과 장승헌 사이에 수창이 이루어진 시는 모두 39제 72수인데,

시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보편적 사행로와 비교하여 표시해 보니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었다.²⁴⁾ 또한 양인 간의 창수시는 대부분 이들이 머무르는 객관을 제목으로 삼고 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읊은 題詠詩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술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신광한과 장승헌은 나이·언어·신분·학문 수준 등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문사가 만나서 서로 수창을 하다보면 그 문학적인 대결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조선의 문사만이 갖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문사들 또한 중화의 체면을 지키려고 시 짓기에 골몰하였고, 사행이 끝난 후 조선에서 지었던 시 작품들이 고스란히 『황화집』으로 간행되어 본국에 유포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1539년(중종 34) 頒詔正使로 조선에 왔던 華察의 글을 통해 중국 사신들의 그러한 고민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황화집』은 이미 고사가 있으니 지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행은 기일이 매우 촉박하여 도중에서 우연히 지은 것도 모두 한때의 흥을 부친 것으로, 퇴고하지 못했고, 국 중에 이르러 5일 동안을 머물렀으나 어진 국왕과 여러 신하들의 예의가 은근하여 상견이 빈번했으므로 일각의 여가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연회할 때 수답한 시가 있었지만 이는 고마운 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간단하게 지은 것이므로 전혀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간행하시고자 할 때에는 유식한 이에게 전일의 작품까지 교열을 시켜 다소나마 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편을 뽑아 간행할 것이며, 배신들이 화답한 것 또한 선별해서 간행하여 피차 서로 어울리게 하십시오. 군자는 사람을 덕으로 사랑하고, 정밀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²⁵⁾

24) 표 안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신광한의 시 안에 보이는 시제들이다.

25) 『中宗實錄』, 「中宗 34年 4月 16日條」, “皇華集錄, 既有古事, 今不敢辭, 但此行甚迫, 途中偶有所作, 皆一時寓興, 未敢推敲. 比至國中, 雖留五日, 而賢王與諸臣, 禮意殷勤, 相見數數, 無一刻之暇, 間有燕娛之什, 情不能已, 草草塞白, 肆不成章. 若欲登梓, 乞命識者, 通前校過, 擇其稍可傳者, 刻數篇, 其陪臣和章,

翰林院侍讀 華察의 고민이 이러했다면 장승헌의 부담감이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몇 차례의 『황화집』이 간행되어 유입된 후 중국의 문사들은 즉흥적 詩作 행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조선의 사행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그곳의 승경지와 주변 경관에 대해서 학습했으며, 이전 사신의 시에 미리 차운을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두 명에 불과한 자신들과 수창할 조선의 문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중화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대비로 이해된다.²⁶⁾ 장승헌 역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화집』에 실려 있는 39제의 시 중에서 차운시가 21제에 달한다. 이 중 시제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韻을 차운했는지가 밝혀져 있는 경우가 16제인데, 董越(1488년(성종19)) 사행) 2제 · 龔用卿(1537(중종32)) 9제 · 華察((1539(중종34)) 2제 · 薛廷寵(1539(중종34)) 3제이다. 장승헌이 오기 바로 직전 사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시를 주로 차운한 것으로 보아 그가 오기 전 예비 창작 과정을 거쳤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승헌의 「義順館」 시에는 세 주로 “이 아래로 「開城府 太平館」²⁷⁾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은 조칙을 반포하기 전에 지은 것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내보인 것이다.〔此以下至開城府太平館諸作頒詔前所製而回程出示〕”라는 글이 붙어 있으니 詩作을 한 후에도 조선의 문관들에게 내보이기 전 상당한 퇴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화집』에 실려 있는 신광한과 장승헌과의 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개인적인 교류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개인적인 감회를 읊은 시보다는 주변 경관을 읊고 서로를 추앙하는 의례적인 내용이 주

亦宜選刻，彼此相體。君子，愛人以德，貴精不貴多也。”

26)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p.119.

27) 『皇華集』 卷4, p.416. 「開城府大平館次董先生韻」.

를 이루고 있다. 이것의 원인으로서는 ① 두 사람의 많은 나이 차, ② 장승헌의 詩作에 대한 부담, ③ 짧은 체류 기간²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신광한과 장승헌의 내면성을 엿본다거나 각 개인의 순수한 감성을 살피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지어진 특수 문학으로서 양국 문사의 역사의식·문학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체모를 지키고자 하는 관료의식의 발로와 개인의 자존심을 온전히 하려는 자부심의 표출은 『황화집』의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다음 장에서는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광한의 1. 투철한 관료 의식과 2. 詩才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明使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를 함께 제시하면서 분석을 시도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논의의 포커스는 신광한에 맞추어 서술하려 한다.

IV. 『황화집』 작품에 투영된 신광한의 작가 의식

『皇華集』이라는 명칭은 『詩經』, 「小雅·皇皇者華」에서 취한 것이니, 毛序에 “「皇皇者華」는 군주가 사신을 보내는 것을 읊은 것이니, 예악으로써 전송하면서 멀리 나가 국가를 빛냄을 말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實錄』에 보이는

28) 『仁宗實錄』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장승헌 일행이 일정을 서둘렀던 정황이 포착된다. (「仁宗 1年 4月 21日條」, “今天使期以念九入京, 倍程馳突, 置郵困頓, 力不可支. 非徒馬也, 僕痛卒斃, 慘不可忍, 遠接使追從亦難.”; 「仁宗 1年 4月 28日條」, “面語曰, ‘速去可也. 祭則以二十九日行之.’ 臣答曰, ‘且安可不擇吉日而行乎? 五月初二日初四日行之可也.’ 天使堅執不聽.”)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별도로 사적인 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자연스레 의례적 수장의 형식과 절차를 밟는 선에서 머물렀으리라 생각된다.

진감·고윤 등이 무릇 본 바의 雜興을 하나의 시에 붙여 합한 것 약간의 首와 아울러 本國 사람이 화합한 것을 인행하여 주며, 『皇華集』이라 이름 하였다.³⁰⁾

라는 기록을 통해 『황화집』이라는 題名은 중국 사신에 의해서 命名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신을 나가서 늘 부족한 듯이 매사에 삼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경계의 말을 담고 있는 『詩經』, 『皇皇者華』에서 의미를 취해 양국 사신들의 시문을 엮은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論語』에 “『詩』 300편을 외우면서도 (중략)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혼자서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한들 어디에 쓰겠는가?”³¹⁾라는 말이 있다. 정치·외교에 있어서 시를 인용하고, 시를 짓는 능력은 自國의 대외적 위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사신이 수창한 시작품을 담고 있는 『황화집』 소재 작품들은 作詩者 개개인의 섬세한 내면세계를 읽어내고, 각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이것을 통해 작가 의식의 일단면을 살펴보기에는 응축성과 집약성을 가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遠接使 申光漢과 明使 張承憲의 창수시를 통해 新광한의 觀료의식과 詩才에 대한 자부심을 살펴보았다.

1. 투철한 觀료 의식

『황화집』에 실려 있는 시 작품을 지을 당시 新광한은 元 접사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明에 대한 충정을 드

29) 『毛詩』(『漢文大系』 12, 新文豐出版公司) 卷9, 「小雅·皇皇者華」, p.5, “皇皇者華, 君遣使臣也. 送之以禮樂, 言遠而有光華也.”

30) 『世祖實錄』, 「世祖 4年 閏2月 7日條」, “陳·高等凡所見雜興, 一寓於詩, 合若干首, 并本國人所和, 印而贈之, 名曰皇華集.”

31) 『論語』(『漢文大系』 1, 新文豐出版公司) 卷4, 「子路」 13, p.54, “子曰, 誦詩三百……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러내고, 明使를 추앙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양상을 맹목적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조선이 취했던 외교정책은 중국과는 事大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국가의 외교노선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 관료로서 외교 수단인 시 작품 속에 사대성을 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신광한은 상대를 추어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 속에 자신의 생각들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투철한 관료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曉發大同江午至黃州, 觀察使權君迎宴」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황화집』에 실려 있는 신광한의 시는 하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승헌의 先唱에 따른 차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시의 분석을 위해 장승헌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를 함께 나열하여 살펴본다.

(前略)

| | |
|---------|---|
| 征鞍細逐朝光轉 | 나그네 말 아침 햇살 따라 걸음 옮기는데 |
| 望眼遙隨去路賒 | 저 멀리 내다보니 갈 길만 멀었도다. |
| 東道主人能款洽 | 동도주인(東道主人) ³²⁾ 정성으로 잘 대접해 주는지라 |
| 暫留歡賞不須嗟 | 잠시 멈춰 감상해도 애타 것은 없으리라. ³³⁾ [장승헌 作] |

(前略)

| | |
|---------|---|
| 應知到處尊皆酌 | 응당 알겠네. 곳곳마다 동이 채로 잔질함을. |
| 莫問何村酒可賒 | 묻지 말라. 어느 마을에서 술을 샀는지를. |
| 歸作中和獻天子 | 돌아가면 「중화악(中和樂)」 지어 천자에게 바치시오. |
| 北山寧賦獨賢嗟 | 「북산편(北山篇)」 어찌 읊어 홀로 어썩 탄식하리. ³⁴⁾ [신광한 作] |

32) 동도주인(東道主人) : 客이 주인을 이르는 말. 춘추시대 때에 鄭나라가 秦나라에 대하여 “동도 주인이 되겠다.” 하였는데, 곧 진나라 동쪽으로 나올 일이 있으면 정나라가 주인 노릇으로 편리를 보아 주겠다는 뜻이다.

33) 『皇華集』 卷4, 「曉發大同江午至黃州, 觀察使權君迎宴」, p.415.

34) 『皇華集』 卷4, 「次韻」, p.422.

大同江을 출발하여 오후 무렵 黃州로 도착한 후 환영 잔치에 참석해서 지은 시이다. 두 수의 시 모두 首聯·頷聯에서는 대동강에서 황주로 이동하는 동안의 풍경을 읊고 있으므로 논의의 집중을 위해 생략하였다. 먼저 장승헌의 시에서 그는 황주에서 만난 관찰사의 후한 대접에 감사하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밤은 쉬어가며 즐기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화답한 신광한은 頸聯에서는 사신 행차를 반기느라 마을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尾聯인데 「中和樂」과 「北山篇」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唐 나라 때 昭義軍 節度使 王虔休가 지은 樂曲인 「中和樂」을 들어 황제의 덕이 두루 미침을 노래하고, 「北山篇」을 들어서 사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北山篇」은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넓은 하늘 아래가 임금 땅 아닌 곳이 없으며, 海內的 그 누군들 왕의 신하 아님이 없거늘, 대부가 평등하지 못한지라 나만 종사하게 하여 홀로 어질다 하노라.[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大夫不均, 我從事獨賢.]”라 하여 일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해서 자신만 수고로워 부모 봉양을 마치지 못한다는 불평의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신광한은 장승헌에게 사행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황제의 넓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不平心을 갖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황제의 덕에 대한 칭송과 사신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담아내는 동시에 공식적인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는 관료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生陽館次雲岡韻, 酬華太史詩意」³⁵⁾를 본다.

35) 『皇華集』 卷4, 「生陽館次雲岡韻, 酬華太史詩意」, p.414, “만리 길 뗏목 타고 특별히 찾아왔으니, 기쁜 마음 응당 좋은 경치로 열리겠지. 시린 달 완상하며 맑은 통소 소리 듣고, 비갠 구름 꼭 끼고서 낚시터를 굽어본다. 세상 밖서 묘함 찾다 세상 맛을 맛보고, 바다 가서 옛일 돌아보며 시 읊기로 날 보내네. 알겠도다. 한림학사 시 읊었던 이 곳에, 아직 남은 발자국엔 녹색 이끼 찍혀있네.[萬里乘植得得來, 好懷端爲物華開. 喜臨涼月聞清籟, 健挾晴雲俯釣臺. 物外搜奇嘗世味, 海邊眺古費吟腮. 亦知翰苑哦詩處, 尚有鞦韆印綠

<次韻>

山形隨紀盡東來 산의 형세 기록대로 다 동쪽으로 향했는데
 賓館憑高戶牖開 높게 터 잡은 접대관은 창문 활짝 열려있다.
 妙句更看留玉訣 묘한 글귀 다시 봐도 귀한 비책 남겨 있고
 仙雲應爲護瓊臺 신선 구름 응당 화려한 대 보호하네.
 茶煎方丈眞三椹 달이는 차 방장산의 진짜 오랜 약초요
 魚薦松江亦四腮 올린 고기 또한 송강의 귀한 물고기라.
 (大同江, 一名松讓江. 대동강은 송양강이라고도 한다.)
 風物足稽天下士 경치는 천하 선비 붙잡기에 충분하니
 不妨移席坐蒼苔 자리 옮겨 푸른 이끼에 앉는대도 무방하리.³⁶⁾ [신광한 作]

首聯에서는 生陽館에서 바라보는 산세와 그 곳에 위치한 생양관을 그리고 있다. 頷聯에서는 이전 사행길에 이 곳을 지나갔던 龔用卿이나 華察 등 여러 사신들이 남겨둔 제영시들을 살펴보니 귀한 뜻을 모두 남겨 두었고, 신선 구름[仙雲]이 긴 세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읊고 있다. 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곳은 頷聯이다. 사신을 대접하기 위해 차와 음식을 내오는 정황을 읊고 있다. 丁若鏞의 「五葉亭歌」에 “세 가장귀 다섯 잎새는 본디 신선의 약초라[三椹五葉本仙草]”라는 구절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세 가장귀의 식물과 네 아가미를 가진 물고기는 모두 희귀성을 지닌 것들이니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頷聯은 표면적으로는 신선의 약초와 귀한 물고기를 바치는 것으로 사신을 신선에 비유하면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귀한 물건이 나오는 이 장소, 곧 조선 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尾聯에서 주변 풍광이 모두 絶景이라 천하 선비들을 붙잡아 둘만하니 이런 자연 속에 묻혀서 함께 즐기는 것도 좋으리라는 것으

참.”[장승헌 作 1539년(중종 34)에 頒詔正使로 왔던 翰林院侍讀 華察은 生陽館에서 蘇世讓과 교류하면서 「生陽館午餉次韻」이라는 시를 지었기에 生陽館에서 그의 자취를 밟아가며 시를 지은 것이다.

36) 『皇華集』 卷4, 「次韻」, p.422.

로 頷聯의 생각을 이어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신광한은 明使를 신선에 비유하며, 그에게 귀한 음식을 정성 들여 바친다는 것으로 尊崇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의 약초와 물고기가 나는 나라, 조선에 대한 찬미의 뜻도 은연중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사신을 접대하고 있는 관료로서 明을 높이는 사대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自國의 위신이 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신광한이 관료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주성과 사대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朝鮮往返卽事感懷」를 살펴본다. 모두 8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나,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其一·其二만을 인용하겠다.

其一

| | |
|---------|--|
| 路入津亭第一程 | 나루터에 접어드니 첫번째 노정인데 |
| 淺沙隄上候人迎 | 제방가 모래물서 기다리며 맞이하네. |
| 花明劔珮官儀肅 | 환한 꽃 사이 검과 패옥 위위가 엄숙하고 |
| 鷺潔衣裳色尙清 | 해오라기 깨끗해서 복색 더욱 정결하다. |
| 進退將承殊有態 | 진퇴하며 받들어 모심 자못 자태 남다르고 |
| 語言噂沓只同聲 | 이야기가 쏟아지니 다만 소리 함께할 뿐 |
| 驩然道左填車騎 | 반기는 속 길 옆에는 수레 가득 메웠으니 |
| 倍見東人愛客情 | 동쪽사람 나그네 사랑하는 정 갑절이네. ³⁷⁾ [장승헌 作] |

<次韻>

| | |
|---------|-------------------------|
| 鴨綠江頭漢使程 | 압록강서 중국 사신 행차 길에 나아가서 |
| 東人重禮爲郊迎 | 동쪽 나라 두터운 예의 차려 들에서 맞아 |
| 詔從三殿頒藩服 | 황궁에서 조서 내려 먼 나라로 전달하려 |
| 星動孤槎下太清 | 은하수에 돛배 띄워 하늘에서 내려왔네. |
| 蔽日旌旗分野色 | 해를 가린 깃발들이 들판 경치 나누어 놓고 |

37) 『皇華集』 卷4, 「朝鮮往返卽事感懷」, p.403.

滿船簫鼓雜江聲 배에 가득 악기 소리 강물에 섞였구나.
 皇恩極處翻垂淚 황제 은혜 극진해서 눈물 방울 흘날리니
 誰識孤臣此日情 그 누가 외론 신하 오늘의 정 알겠는가?38) [신광한 作]

장승헌이 조선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시와 그에 차운한 신광한의 시이다. 첫 번째 수에서는 처음 明의 사행단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을 밟았을 때의 상황과 느낌을 서술하였다. 明나라 사신의 눈에 들어온 조선의 모습과 조선의 관료 눈에 들어온 사행단의 모습이 각각 시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장승헌의 시는 遠景에서 近景으로 시선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압록강을 건너 첫 여정을 시작하려는데 자신을 반기는 조선 관리들의 엄숙하고 절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頸聯과 尾聯에서는 시선을 좀 더 밀착시켜서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대접함에 그 반기는 정이 두터움을 말하면서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도 사신 행렬에 대해 미화를 극대화하여 화답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중국의 사신들을 두터운 예의를 차리고 맞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明使 행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頷聯에서는 “은하수에 돛배 띄워 하늘에서 내려왔네”라는 표현을 통해 신선에 비유하여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頸聯에서는 ‘分野色’·‘雜江聲’의 표현을 통해 행렬의 성대함을 과장하여 적고 있다. 尾聯에서는 皇恩에 대한 감격의 뜻을 문면에 노출시키고 있다.

其二

愛客曾聞九戩風 길손 아껴 구역편(九戩篇) 부름 일찌기 들었었고
 衣冠今見百年同 의관은 백년토록 한결같음 지금 또 보네.
 春和語氣謙恭外 봄날 같은 말의 기운 공손함이 드러나고
 肅穆儀容慘淡中 엄숙한 몸가짐은 슬픈 마음 품었어라.
 弓劍先王嗟往日 활과 검 선왕 것이라 지난날이 애석하나

38) 『皇華集』 卷4, 「次韻」, p.406.

禮文昭代動皇衷 제도 문물 밝게 남아 황제 충심 움직이네.
使臣忝竊承王命 이 사신이 외람되이 황제 명을 받았으니
不惜千峰與萬峰 천봉우리 만봉우리 마다 앓고 달려왔네. [장승헌 作]

<次韻>

王化由來草上風 왕의 교화 풀 쓸리는 바람처럼 교화 시켜
正看漸被萬邦同 모든 나라 차츰차츰 같아짐을 바로 보네.
東藩世職知無替 동쪽 변방 대대 직책 변함없음 알겠고
北極皇猷已建中 북쪽 끝 황제 교화 이미 중도 세워졌네.
元祀卽今優禮秩 큰 제사에 이제 옴은 예절 표시 뛰어나고
亶聰應爲記誠衷 임금님은 응당 정성 다한 충심을 기억해서지.
天涯涕淚悲弓劍 하늘 끝 눈물 흘러 활과 검을 슬퍼하니
回首橋山隔幾峰 고개 돌려 교산(橋山)까지 몇 봉우리 떨어졌다. [신광한 作]

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장승헌은 중종의 승하를 위로하고 인종의 등극을 하례하기 위해 파견된 弔祭副使였다. 장승헌의 시에서 『詩經』, 「豳風·九罭」을 인용하여 대접이 융숭함을 말하면서, 국왕의 崩御에 슬퍼하면서도 위의를 잃지 않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먼 길 달려온 사신 개인의 수고로움이야 걱정할 게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조선에 찾아온 明使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황제의 은혜에 감읍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선왕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을 적고 있는데, 장승헌이 사용한 시어 ‘弓劍’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선왕이 사용하던 주인 잃은 활과 검이 슬프다는 표현을 통해 한 나라의 주인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其三에서 其八까지의 시들은 모두 사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의 느낌을 읊은 시들이다. 상대에 대한 추앙의 뜻을 주고받으면서 고된 사행 일정에서도 말은 바 책임을 등한 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모두 투철한 관료의식이 드러나 있는 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詩才에 대한 자부심

조선은 明에 대해 事大라는 외교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구도는 종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예민한 국제 외교 구도를 차치해 두고 문학적으로만 본다면, 조선의 문사들은 明使와 문장으로 대결해보고자 하는 내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대결의식의 기저에는 자신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能文者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심과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었다.³⁹⁾

신광한의 집안은 9대조 成用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10대가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였고, 정승이 된 사람도 네 명이나 되는 名閥이었다.⁴⁰⁾ 신광한은 특히 1450년(세종 32) 頒登極詔使로 왔던 倪謙을 館伴으로 수행했던 祖父 申叔舟의 文才와 道德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였다. 시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며 겸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倪謙으로부터 知友로 인정받았던 신숙주의 文才를 은근하게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가계에 대한, 그 혈통을 이은 자신의 文才에 대한 자부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 「奉別華亭副使大人」 竝序에 그 내용이 자세하므로 인용해 본다.

나의 조부인 신숙주(申叔舟)는 경태(景泰) 1년[1450년] 관반(館伴)으로서 전당(錢塘) 예학사(倪學士; 倪謙)를 모셨다. 조부는 중국어에 능통해서, 늘 예공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예공이 외국인 친구[外國友]로 인정해서 그와 함께 서신을 왕래하기를 삶을 마칠 때까지 끊지 않았다고 한다. 예공이 편찬했던 요해편(遼海編)에 조부의 이름이 또한 들어 있다. 나는 비루한 사람이라, 조부에 비하자면 꼭 오합지졸 같은데도 오히려 화정학사(華亭學士; 張承憲)와 짝을 이루었으니, 욕되기가 매우 심하다. 그가 돌아갈 때에 오래 모신 신분으로

39) 金德秀, 앞의 논문, pp.115-116. 참조

40) 『企齋集』 卷14, 「文簡公行狀」, p.374a, “自成用至公, 凡十代連登金榜, 而乘丹轂者四.”

외람되어 이별의 말을 남겼다. 선조[신숙주]가 예공[예겸]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끌어다가, 칭찬이 천한 나에게까지 미쳤으니,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열 겹으로 소중히 간직하여 대대손손 보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곧바로 여러 종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조정의 신하들에게 자랑하리니, 영화롭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고, 내려주심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후략)⁴¹⁾

예겸과 신숙주가 주고받은 시문들이 이미 『황화집』으로 출간되어 중국에 널리 유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승헌은 사전에 신숙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먼저 조부의 함자를 거론하며 추앙의 뜻을 내비치자 겸양의 뜻을 담아 답하면서 대대손손 가보로 삼을 영광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겸양의 표현 속에 자신의 가계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이어받은 자신의 文才에 대한 自尊 意識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遊蕙秀山次雲岡太史韻」시를 보기로 한다. 이 시는 모두 26句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고시이다.

<次韻>

(前略)

| | |
|---------|-------------------------------|
| 紛紛今古經過者 | 분분하게 예나 지금 들러 가는 사람 중에 |
| 着眼何人愛奇峙 | 어떤 사람 우뚝함을 사랑했나 살펴보니 |
| 當年天上董詩仙 | 그 해에 하늘 가의 동시선(董詩仙; 董越)이 내려와서 |

(中略)

| | |
|---------|--------------------------|
| 牢籠物色入龜趺 | 모든 풍경 망라하여 거북 비석에 새겼으니 |
| 往事不許隨逝水 | 지나간 일 세월 따라 묻히는 걸 허락 않네. |
| 尋聲覓句繼者誰 | 음은 시구 찾아내어 이어줄 자 누구인가? |

41) 『皇華集』卷4, 「奉別華亭副使大人」, p.425, “光漢祖父叔舟, 於景泰年初以館伴陪侍錢塘倪學士. 祖父善華語, 每與倪公從容開抱, 倪公許以外國友, 與之通信, 終其世不絕云. 倪公嘗撰遼海編祖父名姓亦與存焉. 光漢鄙人也, 望祖正所謂蟻蜂. 而猶得與華亭學士作伴, 忝已甚矣. 於其還也, 以久侍之分, 辱留別語. 盛引先祖父受知於倪公, 褒及下賤, 所不敢承當. 非止十襲珍藏以爲子孫寶, 歸卽示諸宗黨, 詫及朝中搢紳, 榮莫甚焉, 賜莫大焉. ……”

| | |
|-----------------|--|
| 前龔後華同一指 (中略) | 앞뒤로 온 공사(龔使)·화사(華使) 한가지로 똑같구나. |
| 張仙自是乘植後 | 장(張) 신선이 뗏목 타고 이곳으로 온 후에 |
| 定與湖山成永矢 | 강호와 더불어 굳은 맹세 이루었네. |
| 登臨佳處意有會 | 좋은 곳에 올라가서 뜻이 함께 모이면 |
| 孤雛凌晨同澤雉 | 새벽까지 울어대니 늪지대 꿩 ⁴²⁾ 같구나. |
| 遺璣墮珮雜瑟瑟 | 흩어져있는 구슬들이 어지러이 섞인 것을 |
| 收拾盈囊吾得已 | 주워 모아 주머니에 가득 차게 얻었을 뿐 |
| 蔥秀增高翠屏長 | 총수산(蔥秀山)은 더욱 높고 푸른 바위 끝없는데 |
| 更托貞珉留峻址 | 또 빛돌에 의지해서 높은 터에 남겨두니 |
| 東人世世服香名 | 해동 사람 대대로 향기로운 이름 들을꺼니 |
| 此名盡時山亦毀 | 이 이름 다할 때쯤 이 산 또한 무너지리. ⁴³⁾ [신광한 作] |

황해도 평산에 있는 葱秀山에서 노닐면서 적은 시이다. 생략한 부분은 모두 경관을 묘사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인용하였다. 고시를 하나의 호흡으로 끈질기게 시상을 이어가는 작가의 능력이 돋보인다. 이 시에는 葱秀山을 거쳐 갔던 역대 사신들의 이름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1488년(성종 19)에 조선에 왔던 董越에서 시작하여 1537년(중종 32)의 龔用卿, 1539년(중종 34)의 華察을 거쳐 지금의 張承憲에서 맺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 총수산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여러 사신들이 거쳐 갔는데, 동월이 사신 왔을 때 “모든 풍경 망라하여 거북 비석에 새겼으니” 바로 「葱秀山碑」임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의 文才를 공용경과 화찰이 이어 받아 총수산을 제재로 시문을 남겼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서 장승헌과 함께 노닐고

42) 『莊子』 「養生主」에 “늪지대에 사는 꿩은 열 걸음 걷고 나서 한 번 쪼아 먹고 백 걸음 걷고 나서 한 번 물을 마시지만, 새장 속에서 길러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나니, 그 이유는 비록 잘 먹어서 기운은 왕성해질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澤雉 十步一啄 百步一飲 不蕪畜乎樊中 神雖王 不善也]”라는 말이 나온다.

43) 『皇華集』 卷4, 「次韻」, p.423.

있음을 말하면서 『莊子』, 「養生主」에 나오는 ‘늪지대 꿩[澤雉]’을 시어로 사용하여 날이 다하도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유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흩어져있는 구슬들이 어지러이 섞인 것을, 주워 모아 주머니에 가득 차게 얻었을 뿐[遺璣墮珮雜瑟瑟, 收拾盈囊吾得已]”이라고 하여 이곳에서 읊은 시문들을 자신은 수습하기만 했을 뿐임을 말하며 겸양하고 있지만 내심 옥구슬에 비할 만한 시 짓기였음을 은연중에 자부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를 통해 장승헌에 대한 칭송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신분이 가지는 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수산을 대상으로 지은 시 한 수를 더 보기로 한다.

<次韻>⁴⁴⁾

| | |
|-------|---|
| 川源古竇西 | 물살은 옛길 따라 서(西)로 흐르고 |
| 詣絕使人迷 | 절경이라 사람을 홀리는구나. |
| 石老峰巒急 | 묵은 돌 산봉우리 깎아질렀고 |
| 雲參樹木齊 | 구름 낀 나무는 가지런하다. |
| 徒然看面目 | 무심코 그 광경 바라보나니 |
| 誰復問高低 | 누가 우열을 따질 수 있나? |
| 賴有皇華使 | 다행히도 중국 사신 있으니 |
| 留傳試品題 | 시험 삼아 품평을 남겨보련다. ⁴⁵⁾ [신광한 作] |

首聯과 頷聯에서는 총수산 절경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우뚝우뚝한 기암괴석들과 쪽쪽 뻗은 나무들이 총수산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작자는 무연히 할 말을 잃었다. 위

44) 『皇華集』 卷4, 「遊葱秀山」, p.416, “해 저서 서쪽으로 넘어갔는데, 산 보는 마음은 미혹됨 없네. 돌린 숲 꽃 기운 맞들어지고, 나무 타는 새 울음 어우러졌네. 바위 틈 샘물은 줄줄 흐르고, 갈대교 나루터 나즈막하다. 오는 길 흥 아직 다하지 않아, 눈 비벼 옛 사람처럼 글을 짓는다.[落日已沉西, 看山意不迷. 轉林花氣合, 攀樹鳥聲齊. 石澗泉流細, 葦橋渡處低. 還因不盡興, 摩眼昔人題.]” [장승헌 作]

45) 『皇華集』 卷4, 「次韻」, p.424.

대한 대자연 앞에 서니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함축하여 제한된 字數로 표현해 낼 재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尾聯에서 다행히 뛰어난 文才를 지닌 중국 사신이 함께 있으니 그에게 의지해서 자신 또한 시를 지어보겠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것은 皇華使에 대한 칭송과 작자 스스로에 대한 겸양이 함께 표현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읊지 않고는 발길을 뗄 수 없다는 작자의 시적 자부심이 그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並序를 인용했던 작품인 「奉別華亭副使大人」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는 모두 세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타 작품들과는 달리 이 시는 장승헌 시에 대한 차운시가 아니다. 사행을 마치고 압록강에서 헤어지기에 앞서 먼저 장승헌이 「江上與申吏曹長爲別」을 지어 이별의 아쉬움을 읊자 그에 대한 答詩 형태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시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글자 운용으로 아쉬운 마음을 한껏 드러내었다. 신광한 시를 보기에 앞서 장승헌의 시를 먼저 본다.

| | |
|---------|-----------------------------|
| 先朝學士才華甚 | 앞선 세대 학자들의 문재 매우 뛰어난데 |
| 爾祖賡歌相應成 | 너의 선조 화답시가 서로 응대 이루었네. |
| 遼海一編今尚在 | 『요해편(遼海編)』 한 편이 지금까지 전해지니 |
| 汎翁天下有遺名 | 범옹(汎翁; 신숙주)은 천하에 그 이름 남겼구나. |
| 揭來袞袞百年內 | 세월은 유유히 흘러 이어지기 백 년여 만에 |
| 君當妙選從余行 | 그대는 선발되어 나를 따라 다니네. |
| 薄劣眞慚繼倪後 | 내 졸렬함 예겸(倪謙) 뒤를 잇는 것이 부끄럽고 |
| 高明何忝繼家聲 | (그대) 밝음 집안 명성 이음에 어찌 욕되리오. |
| 熏人以德飲醇酒 | 덕으로 좋은 술을 마시니 얼큰해지고 |
| 贈我文字持瑤瓊 | 나에게 준 글들은 옥처럼 지니리라. |
| 淵源君未盡底蘊 | 그대의 못 보여준 속 재주 깊을지니 |
| 魂夢我已馳神京 | 꿈에도 서울 가는 길 멈칫거리네. |
| 南鴻北鴈各有意 | 남 기러기 북 기러기 제각기 뜻 품었는데 |
| 江流雲樹難爲情 | 흐르는 강 구름 나무 정 가누기 어렵도다. |
| 惟應遲爾朝天使 | 너희 나라 조회 오는 사신만을 기다려서 |

寄以平安慰友生 평안 소식 부쳐 보내 친구를 위로하리.⁴⁶⁾

1-4구에서 장승헌은 신광한의 조부인 신숙주를 언급하면서 그의 뛰어난 文才를 칭송하고 있다. 5-8구는 倪謙이 사신으로 와서 신숙주와 교류한 것이 1450년(세종 32)인데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545년(인종 1)에 자신이 사신으로 와서 신광한과 만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예겸에게 부끄럽지만 신광한은 신숙주와 필적할 만하다며 한껏 추어올리고 있다. 9-12구에서 전별연에서 신광한이 지어준 시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하며, 좀 더 긴 시간 그와 어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다. 13-16구에서는 이제 헤어져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리워하는 정은 계속될 것이니 이후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 서로 간 안부를 주고받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광한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7언 율시 세 수로 답하였다. 다음에서 「奉別華亭副使大人」⁴⁷⁾의 其二와 其三을 살펴본다.

其二

| | |
|---------|----------------------------|
| 華亭山水擅江東 | 화정부(華亭府)의 산수는 강동을 압도하고 |
| 天篤張家德業隆 | 충에 받는 장씨집안 쌓은 덕이 성하도다. |
| 黃石橋邊能隱忍 | 다리 위의 황석공(黃石公)이라 숨죽여 참았고 |
| 賀循船裏且從容 | 배 안의 하순(賀循) 만나 또한 따라 나섰도다. |
| 蓴鱸秋興非全敗 | 고향 생각 가을 흥취 다 버린 건 아니었고 |
| 帷幄奇功未盡逢 | 계책 세워 기묘한 공 다 맞은 건 아니었네. |
| 丈夫出處關輕重 | 대장부는 출처할 때 경중을 잘 조절해서 |
| 平世經綸要在中 | 평생 동안 뜻 펼침을 중(中)에 맞춰야 하네. |

46) 『皇華集』 卷4, 「江上與申吏曹長爲別」, p.424.

47) 林采明은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 p.73. 에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는 華亭 副使인 薛廷寵을 떠나보내며 지은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華亭은 장승헌이 松江府 華亭縣 사람이기에 칭한 것으로 華亭副使는 곧 華亭縣 사람 弔祭副使 장승헌을 말하는 것이다. 『황화집』 수록 次第나 시의 내용을 보아도 대상을 장승헌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는다.

其三

傾蓋相逢鴨水濱 비스듬히 수레 일산 압록강서 마주 대니
 鳳章龍節照青春 빛나는 황제 의장 푸른 봄을 비취준다.
 崑山片玉非三削 곤륜산(崑崙山)의 옥 한 조각 세 번 형벌 아니어도
 淮海揚州是一人 회해(淮海) 물가 양주땅엔 이 한 사람뿐이라네.

(崑山在華亭府, 府隸揚州.)

곤륜산은 화정부(華亭府)에 있는데, 양주(揚州)에 예속되어 있다.)

目擊便成青眼舊 직접 보니 문득 오랜 사이처럼 반가우니
 心知寧似白頭新 마음 서로 통하는데 어찌 서먹함 있겠는가.
 秋鴻社燕難謀久 가을 기러기 봄 제비 오래 있기 어려우니
 欲賦緇衣淚滿巾 「치의편(緇衣篇)」을 읊으면서 눈물 수건 적신다오.

첫 번째 시⁴⁸⁾에서 장승헌이 신숙주의 文才를 높이 샀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조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을 “둔한 자질[駑質]”로 斷定하여 겸양의 덕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시에서는 장승헌이 자신의 가계를 인정해 준 뜻을 이어서 신광한 역시 장씨 가문의 위대함을 추앙하는 뜻을 펴고 있다. 특히 頷聯과 頸聯에서 적절한 고사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광한의 文才와 詩作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리 위의 황석공(黃石公)에겐 참고 기다릴 수 있고[黃石橋邊能隱忍]”는 漢나라 張良을 이룬 것이다. 張良이 下邳의 다리 위에서 黃石公을 만나, 그의 신발을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신겨 준 것을 인연으로, 황석공에게서 『太公兵法』을 받아 익혀, 훗날 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

48) 『皇華集』 卷4, 「奉別華亭副使大人」 其一, “조부이신 叔舟님은 字가 泛翁인데, 일찍이 관반 따라 倪公(倪謙)을 모셨네. 글 재주는 이미 『遼海編』에 들어갔고, 도덕은 마침내 술과 종에 새겨졌네. 선대에서 비록 緒業의 터 닦았으나, 후손들이 어찌 가풍을 이을 수 있으랴? 외람되게 둔한 자질 접반관이 된 날에, 은혜 입은 것 놀라 북쪽 하늘 바라보네.[吾祖叔舟字泛翁, 曾從館伴侍倪公. 文華已入編遼海, 道德終歸勒鼎鍾. 先代縱能基緒業, 後孫那得繼家風. 叨將駑質成龍日, 一顧堪驚冀北空.]”

일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배 안의 하순(賀循)이라 또한 따라 나섰도다. [賀循船裏且從容]”는晋의 張翰을 이룬 것이다. 會稽의 賀循이 명을 받고 洛陽으로 가는 길에 吳의 閶門을 지나면서 배 안에서 거문고를 연주 하니, 張翰이 초면에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마음이 맞아서는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함께 배를 타고 낙양으로 간 것을 이른다. 頸聯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上句에서는 張翰이 洛陽에서 벼슬하다가 문득 고향의 순채국, 농어회 생각이 간절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吳郡으로 돌아간 고사를, 下句에서는 훗날 천하를 통일하는 공을 세운 張良도 이전에 韓나라의 司徒職을 맡는 시행착오를 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尾聯에서 出處의 輕重을 잘 따져서 처신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앞서 신숙주를 문면에 드러내어 褒揚했던 장승헌에 비해서 張良·張翰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그 집안의 뛰어난 점을 칭송했으니, 신광한의 詩才가 장승헌보다 한 수 위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546년(명종 1) 賜諡使로 방문했던 王鶴이 장승헌의 『황화집』을 구해서 신광한이 지은 작품을 보고서 감탄하며 “장승헌이 압도를 당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는 기록⁴⁹⁾이 虛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는 이별의 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 헤어지려고 압록강 변에서 마주 서니 아쉬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이다. 頷聯에서는 和氏璧 고사를 활용하여 장승헌의 인물됨을 높이고 있다. 頸聯에서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 마음을 터놓은 사이처럼 반가운 눈[靑眼]이 되었고, 마음으로 서로 허여하니 서먹함은 없었다고 하여 지나온 사행 일정을 추억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가을 기러기 봄 제비[秋鴻社燕]”를 들어 짧은 만남 끝에 곧바로 이별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詩經』, 「鄭風·緇衣」를 들어 賢士인 장승헌과 헤어지는 아쉬움

49) 『企齋集』 卷14, 「文簡公行狀」, p.374a, “鶴求見張天使皇華集. 見公所作嘆曰, ‘張天使見壓多矣.’”

을 달라고 있다. 이 역시 장승헌의 “惟應遲爾朝天使, 寄以平安慰友生”과 비교해 보면 시적 함축미를 잘 살리고 있는 시구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신광한의 사환기에 행해졌던 明使와의 교류와 그 수창 양상의 일단면을 살펴보았다. 신광한은 세 차례에 걸쳐 사신 접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1545년(인종 1)에 행해진 사행에 논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事大 관계를 유지한다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에 신광한과 장승헌은 대등한 처지가 아니었으며, 신광한은 종속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었다. 신광한은 明使에 대한 추앙의 뜻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관료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예민한 국제 외교 구도를 차치하고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장승헌 또한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없었다. 신광한과 장승헌은 나이와 문학적 역량에 있어서 뛰어 넘기 어려운 격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자간 대등하지 못한 처지는 편안한 관계 형성에 다소간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체류기간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까지 더해져 신광한과 장승헌은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서로에 대한 사적 교감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황화집』에 소재한 신광한의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명사 접대는 신광한의 사환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기묘사화를 통해 정치적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데에는 그의 외교술과 사장능력이 큰 배경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황화집』 수록 작품들은 비록 특수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광한의 경우 자신의 작품 안에서 국가의 체모를 지키고자 하는 관료의식과 시인의 자존

심을 온전히 지키려는 시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사환기의 그의 내면세계를 엿보는데 유의미한 연구 자료가 된다. 분석 텍스트를 『황화집』 소재 작품들로 함으로써 명나라 장승헌의 작품과 조선의 신광한의 작품을 함께 제시하여, 신광한의 작시 배경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양국 문사의 시각을 함께 드러낸 것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신광한이 관여한 세 차례 사행 때 행해진 수창 작품들을 폭 넓게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세계를 심층적으로 살핀다면 신광한의 사환기 내면세계를 밝히는 데 큰 의미를 가지리라 기대한다.

<參考文獻>

- 『論語』 『毛詩』 『莊子』
『皇華集』, 靑雲文化史 影印 (영조 49년).
申光漢, 『企齋集』, 『韓國文集叢刊』 22, 한국고전번역원.
『朝鮮王朝實錄』
- 姜綾琇, 「企齋 申光漢의 漢詩 小攷 - 寓居期 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韓國漢詩學會 제9회 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漢詩學會, 1999.
- 류기수, 「『皇華集』의 刊行과 收錄된 明詞에 관한 考察」, 『中國學研究』 47, 중국학연구회, 2009.
- 蘇在英, 「申光漢의 企齋記異」, 『崇實語文』 3집, 崇實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86.
- 申太永, 「『皇華集』研究 - 文學的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沈慶昊,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 吳賢淑, 「企齋 申光漢의 詩研究」, 『漢文學論集』 14집, 근역한문학회, 1996.;
-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6.;
- 임채명, 「企齋 申光漢 詩의 一局面 - 『皇華集』 所載 詩를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제19집, 근역한문학회, 2001.
- ,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Gijae Shin Gwang Han Expressed in
『Hwanghwajip(皇華集)』 - Focusing on the Aspect in Exchanging Poems with
Ming Envoy Jang Seung Heon / Son Yoo Kyung**

Gijae Shin Gwang Han (1484-1555) is a figure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literary circles of the day while being in the government service for around 30 years. As a method to identify the development of his literary world in his life and his consciousness presented in his poems, this study looked into poems he exchanged with a Ming envoy while carrying out the duty of greeting him. Those poems, of course, account for a very small part of his works. However, the record of greeting a Ming envoy was an important incident in his life and it is significant as it demonstrated the recognition of his poems by his contemporar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poems contained in Hwanghwajip, which includes both Ming Envoy Jang Seung Heon's poems and Shin Gwang Han's responding poems, looking at the aspect of poem exchange between Shin Gwang Han and Jang Seung Heon and the poet's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poems exchanged with Jang Seung Heon. Shin Gwang Han was involved in three times of envoy greetings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envoy greeting carried out in 1545 (the 1st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ough pieces of work in Hwanghwajip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literature, the poems can serve as meaningful research materials for getting a glimpse of Shin Gwang Han's inner world during the period he was in the government service because they display both his bureaucratic attitude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curator98@hanmail.net

to save his country's face and poetic self-esteem to fully keep the pride as a poet. In addition, another outcomes of this study would be to verify the background of his literary works in more details and to reveal the viewpoints of two literary men who lived in the same era but different countries by analyzing poems written by Jang Seung Heon of Ming dynasty and Shin Gwang Han of Josun.

【Key words】 Shin Gwang Han, Hwanghwajip, exchanging poems, a Mying envoy, the consciousness of a writer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